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공동체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20일) 오후 2시 30분 비대면으로 모입니다. 여름공동체생활과 대출 건을 의논합니다.
- 이번 주간에 공동체학교들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김정흠 청년이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였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24 호
2021년 6월 1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우분투, 그 너머를 향하여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불러 모은 뒤,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가지 음식들을 준비해놓고, 달리기 시합을 해서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낫고, 인류학자는 호기롭게 '출발'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풍경에 그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달려나가나 싶더니, 이윽고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가서 골인점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네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이들에게 인류학자는 물었습니다.

"왜 모두 함께 갔니? 누구든 일등으로 가면 혼자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아이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다.

"우분투!"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우분투(UBUNTU)는 아프리카 반투족 말로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철학적 논의를 떠나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결국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이 누리는 행복이, 타인의 슬픔을 대가로 한 것이라면, 자신의 슬픔과도 같은 것으로 여기고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과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선 더욱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

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올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3-48)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분께서는, 선악에 구애받지 않고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한정된 인맥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바깥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을 미워하고 못되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노력해서 원수와 악인에 대한 원망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게 선한 일이라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그런 면을 잘 알고 계셨고, 결국 자신을 그렇게 박해한 사람들의 손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되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못되먹고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응보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복음과 성령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상처와 죄를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아주 가깝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국가와 민족간에도 그런 현재들은 역사로서 기록되고 전해집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뛰어넘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앞서 달리는 선배는, 뒤에 뒤처지고 골인지점을 모르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내 이익에 반하더라도, 우리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이니깐요. 마치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를 찾아냈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언젠간 모든 인류가 손을 잡고, 서로를 '우리'라고 부르며 평화를 이루는 광경을 꿈꾸고 소망해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 아모서서 5장 2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사도행전 15장

제목 :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293 420 390 220 212

1. 내용관찰(What)

- 1-12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갈등하는 교회
- 13-35 예루살렘 회의에서 허용할 것과 금할 것을 정함
- 36-41 바울과 바나바는 다툼 끝에 각자 선교활동을 합니다.

2. 내용의 의미(Why)

- 1) 우리 구원의 조건은 성령님이십니다.
- 2) 교회의 결정은 서로를 위한 배려가 중심입니다.
- 3)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1) 본질에 벗어나는 것을 강요하지 맙시다.
- 2) 나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합시다.
- 3) 겸손하게 서로를 용납합시다.

이 땅에 평화가 있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가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痛史)를 짓는 까닭이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체는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 “한국통사(韓國痛史)” 박은식.

한국의 역사는 박은식선생님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아픔이 가득합니다. 함석헌선생님은 이를 고난의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6월은 그 아픔이 더더욱 크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순종 장례식에 맞춰 일어났던 6.10 만세운동,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한국전쟁 뿐 아니라, 끝내 직선제를 쟁취했던 6월 항쟁의 뜨거움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했던 굵직한 슬픔과 고난이 6월에 담겨있습니다. 그렇게 6월은 나라를 지키며 삶을 불태웠던 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폭력과 불의에 짓밟히면서도 끝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광복을 가져왔고, 국민들은 권력을 가져왔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있어 역사의 정신을 지켜나갔던 이들을 씨알이라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가득 지닌 씨와 알은 각각 또 다른 생명을 퍼뜨리고 잉태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 땅의 선인들은 그 생명을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았고, 독재의 폭력 앞에서도 생명을 품었습니다.

민족의 정신에 있던 생명의 씨는 누군가에게는 앞장서서 싸우는 투사로, 누군가에게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싹틔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로, 누군가에게는 어머니로 싹틔었습니다. 그 생명이 다음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영웅은 그곳에서 태어납니다. 시대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괴로움으로 점철된 삶을 꾸역꾸역 살아내며 끝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그곳에서 나라를 지켜낼 영웅이 태어납니다.

할머니들의 눈물어린 기도과 어르신들의 묵묵한 헌신이 지도자를 만들어 내고 영웅을 키워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은 뜨거운 그분들의 눈물과 땀이 이 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과 슬픔이 내일의 생명들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던 그분들의 마음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알의 기도도 사라지지 않고 끝내 생명이 생명답게 온전히 피어날 그 날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12 : 18-20
9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갈라디아서 2 : 20
531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아모스서 5 : 21 - 27 설교자
539 사랑방
“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라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82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조장희 이재신 / 봉헌위원 : 조장희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공동기도문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라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예언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전한 말씀입니다. 북왕국의 예로보암 2세 시기는 솔로몬 이후 황금기를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외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는 앗수르(앗시리아)의 침략이 임박하는 때였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회개를 촉구하며,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24>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심판하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지도자들은 재물을 얻기 위해 불의와 불법을 행하였고, 부자들은 사치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계층간의 갈등과 소외현상이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정의롭지 않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한국사회를 향하여도 정의를 물으시며 경고하십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라.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십시오. 다윗은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왕상3:6> 정의로운 사회는 구체적으로 공평한 사회입니다. 공평한 사회를 이루십시오. 그런데 공평한 사회가 되려면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하는 사회를 이루십시오. 그리고 신뢰하는 사회가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회를 이루십시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재신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가람이 고모이신 이해경 선생님이 계신 '명산아트힐'에 다녀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해경 선생님 뿐 아니라 두 분의 선생님이 더 계셨습니다. 모두 세 분의 예술가에게 우리 꾸러기들이 환대를 받으며 도자 수업을 받은 것이지요. 황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여러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작업 공간도 근사해서 한참 둘러보며 감상을 한 후, 백토를 이용해서 꽃병 만들기를 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데 선생님들의 친절함 지도로 정성이 가득 담긴 근사한 꽃병을 꾸러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꽃병은 이제 가마에서 구워내야 하는데 세 번이나 구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명산아트힐' 옆에는 연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연못과 고즈넉한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에 돛자리를 깔고 도시락과 간식을 먹고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땀방울이 송알송알 맺히게 뛰어놀다 보니 어느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근사한 '명산아트힐'이었습니다.

기꺼이 장소와 시간을 내어주신 이해경 선생님 그리고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지난 2~3주간동안 환절기를 지나며 감기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들 건강해진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결석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등교하여 더욱 반갑고 즐거운 주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여름이구나 싶을만큼 매우 무더운 한 주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누구보다 매일 불 옆에서 고생하시는 요리선생님들이 제일 고생이

입니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좋아하며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점심식사 시간입니다. 요리선생님들께서 어떤 날씨와 상황 속에서도 늘 최고의 맛과 정성으로 요리해주시는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맛있는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주시니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이번주엔 오랜만에 나들이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역수칙을 지키며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로 함께 주세요~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우중충했던 지난주와 달리 맑게 갠 하늘이 기분이 좋은 한주였습니다. 멋쟁이들은 맑아진 날씨와 함께 지난번 하지 못했던 마라톤을 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5km 가량의 짧지 않은 거리를 뛰었습니다. 코로나로 줄어든 체력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끝까지 자신을 이겨내며 모두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 1등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주었던 마지막 남녀 주자에게도 상이 돌아갔습니다. 우분투상이라고 이름붙인 이 상의 이름은 남아프리카 반투어로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었던 모든 멋쟁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년 3.1운동, 20년 6.25 한국전쟁의 맥을 이어 한국 민주화의 역사와 의의에 대해서 함께 조사하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학년별 여행이 있는 주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에 숙소를 잡지는 않고 학교 내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제한된 상황이지만, 학년간의 깊은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이돈희 >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올해에는 비가 자주 내립니다. 비를 좋아하는 나는 비가 오는 것이 좋은데, 나의 옆지기는 비가 오면 어~~ 또 오네. 오늘은 비가 오면 안되는데 라면서 걱정의 말을 합니다.

요즘은 내가 좋는데 상대방은 좋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은 좋는데 나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모두가 좋을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럴 때 나의 어떤 생각이 또는 어떤 결정이 나에게, 옆지기에, 또 다른 공동체 식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적도 있고, 또는 서로 궁짜이 맞아서 좋은 시너지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다양해서 생각을 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똑 같은 상황인데도 말이 다르고 결과가 다름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것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행동과 생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름이 불편하여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여서, 피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지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간다고는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직면하면서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보다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자라야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루터기사랑방 이윤희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시편 22:26-31

인도 : 해은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파키스탄>

AFP통신에 따르면 남부 카라치에서 북부 사르고다로 향하던 밀라트 급행(Millat Express) 열차가 탈선해 옆 철로로 넘어지면서 2중 추돌로 이어져 지금까지 35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오뉴스는 부상자 수가 64명 이상이며 현장이 수습되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수원>

- 1) 중보기도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예수원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길,
- 2) 5월부터 시작될 77기 자원생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 3) 예수원에서 시작된 중등홈스쿨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삶과 신앙 그리고 지식을 잘 전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6월 25일 비대면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 2) 공동체 학교와 생활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 속에서 지냈습니다. 간간히 내리는 비 덕분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니다. 나이에 따라서 공동체 식구도 계속해서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백신 접종 후 따르는 여러 증세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밭에서는 상추랑 발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 잡초를 뽑는 작업을 공동체 학교 학생들도 노작수업때 함께 작업 합니다. 환경주일을 지내면서 자연과 보다 가깝게 생활하는 것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가깝게 접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숨씨가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좋은 자연환경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정재훈 목사 >